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과 여호와와의 책

[사34:16] 너희는 여호와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 왜 여호와와의 책이라고 했는가?

위의 말씀대로 여호와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책이라고 한다.

여호와와의 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여호와께서 창조한 모든 천연계와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이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가 여호와와의 책이다.

[벧후1:20,21]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록된 성경이 여호와와의 책이다. 그것은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우리가 읽는 여호와와의 책 성경의 배열

현재 우리가 읽는 한글로 번역한 성경은 모든 개신교회에서 가진 성경들과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 헬라어 성경과 체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의 배열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히브리어 성경은 모두 24권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39권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유는 사무엘서(왕국기 1), 열왕기(왕국기 2), 역대기를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고, 에스라느헤미야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누었으며 12 소선지자들을 각각 독립된 책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내용에는 전혀 가감되지 않았다.

교회의 성경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시가; 율기부터 아가까지 5권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다.

합계 39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모두 27권이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

역사서; 사도행전. 1권

편지서; 바울편지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

일반편지서; 야고보, 베드로전후, 요한 1,2 3서 유다서. 7권

계시록; 요한계시록. 1권.

합계 27권

3. 각 책의 이름은 어떻게 붙였는가?

책 이름들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 내용의 주인공 이름, 내용의 중요 사건, 받는 사람, 받는 교회의 이름으로 붙여졌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은 책 내용의 중요 사건이 책 이름이 되었고,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의 중요 내용을 다시 명령하였기 때문에 다시 명령했다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였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 역사이기 때문에, 열왕기, 역대기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라는 뜻이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기자와 책의 주인공이 같은 사람이며, 에스더, 욥, 룻기는 주인공 이름이 책명이 되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주인공이며 또 그가 기록하였다고 보기 때문이고,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지 않지만 사무엘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사무엘상도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형식과 내용을 따라 붙인 이름이다. 그 외의 책들은 다 기자의 이름을 따라 책명이 붙여졌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는 기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사도행전은 내용을 따라서, 그 다음 바울 편지서들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 또는 개인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다.

일반편지서들은 기자의 이름을 따랐으며, 계시록은 기자와 내용을 아울러 붙인 이름이다.

히브리어성경의 선지서 외의 책들은 원래 책 이름이 없고,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책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후대에 와서 책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특히 모세 오경이 그렇다.

4. 외경이란 무엇인가?

외경(外經)은 정경(正經)의 대어(對語)로서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지 않는다. 개신교에서는 구약성경 39권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유대교에서도 그렇다.

외경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것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그 뒤편에 따로 첨가한 책들이다. 그래서 이 글들에 대하여서는 유대교에서도 논의가 많았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에스라에 의하여 수집되고 집대성되었다고 전해온다. 그것이 39권이다. 70인 역에 들어있는 좋은 글들은 왜 정경이 될 수 없는가라는 의의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AD 90년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얀니아라는 동네에서 랍비 총회를 열고 정경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39권만이 정경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후로 유대교에서는 정경에 대한 의의가 없다. 이 39권(히브리어에는 24권) 외의 것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된 것들이다.

원래 기독교에서는 정경 외에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개혁자들이 천주교가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로 만들었다고 공격하자,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39권에는 없으나 읽어서 유익하다는 책, 70인 역 성경에 붙어있는 책들에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1545년부터 1563년까지 23차의 회의를 할 때 70인 역에 있는 14권의 글들 중에서 자기들이 주장에 합당한 내용이 있는 7권만 39권에 더하

여 정경으로 받아들여도록 결정하였다.

그 7권은 토빗서, 유딧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비상, 마카비하, 바룩서 등이다. 이 외에 정경에 더해진 것들이 있다. 에스더서에 여섯 장이 더해졌고, 또 장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장에 내용을 더한 것이 있는데, 4장에 모르드개의 기도라는 내용이 더해졌다. 다니엘서에 3장에는 아사랴의 노래와 세 청년의 노래라는 내용이 더해졌고, 장이 더해진 것은 수산나 이야기와 벨과 뱀의 이야기가 더해져 있다.

원래 14권은 다음과 같다. 제1에스드라서, 제2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에스더, 지혜서, 아사랴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기도, 집회서, 바룩서,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상 바카비 하 이다. 이 중에서 위에 기록한 7권과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 더해진 내용만 트란트 회의에서 천주교의 정경으로 용납하였다.

외경 외에 위경(僞經)이라는 것도 있다. 성경과 외경 외에 성경의 형태를 빌려 마치 성경처럼 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 내용에 관계된 글들이다. 위경은 그 수가 무척 많다.

외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과 관계없이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인간이 보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마카비서에는 그들의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기록된 좋은 글이라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이런 책들이 성경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성경에 의하여 성경을 이해함으로 이런 것들에게 현혹될 필요가 없다.

5. 여호와의 책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의 차이가 무엇인가?

1) **인간관이 다르다:** 성경은 인간을 일원론으로 계시한다. 즉 한 사람 한 생명 한 인격 한 생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을 이원론으로 본다. 육과 영을 분리하여 따로 인격적 존재라고 한다.

2)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론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일반 종교 경전은 도덕론적 선악론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다신론이거나 무신론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비로소 생명으로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악인이나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상실한다고 가르친다(요15:5; 행17:28).

3) **성경은 죄론이 다르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 준 존재를 거절하여 존재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죄라고 계시한다. 그것을 죽은 상태라고 가르친다(마8:21,22; 요5:25; 고전15:22).

그러나 일반 종교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기정사실로 전제 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그 기본 사상이다. 존재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죄론이 도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4) **속죄론이 다르다:** 성경은 인간이 존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게는 행위가 나올 수 없다고 계시한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이신 분이 인간의 상실한 존재를 대속하지 않으면, 상실한 존재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속죄론을 가르친다(히6:1; 고후5:15,21; 엡4:22; 마20:28).

일반종교는 인간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래서 적선(積善)을 해야 하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인간에게 벌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을 위한 구주가 필요하지 않다. 도우는 자는 있어도 대속자는 없다.

5) 구주의 신분이 다르다: 일반 종교는 대속자가 없기 때문에 구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적선을 하기에 너무 힘 드는 사람을 도와서 적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는 자가 필요하다. 그 도우는 존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좋고 사람 이외의 능력 있는 존재이면 더 좋을 뿐이다. 그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이미 존재를 상실한 존재, 다시 말하면 사망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사망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대신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한 대속자가 있어야 하며, 그가 사망이 아니기 위하여서는 사망이 된 사람의 후손으로 탄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생명자체인 하나님 당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 처녀인 여자에게 탄생하여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대속한다고 계시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다(창3:15; 갈 4:4; 요8:23,24; 행17:31).

6) 역사적 시각이 다르다: 일반 종교는 인간 개인이나 인간 자체의 선악에 대하여 가르치며 역사적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언적 계시가 없다. 그러므로 다만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것만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역사적 진행의 종말을 생각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진행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며 그 성취를 통하여 성경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시험하도록 제안한다. 즉 예언과 성취의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역사의 진행이 막연한 진행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 이 세상 역사는 종결된다고 계시한다. 그래서 역사 진행에 대한 예언과 구체적인 종말론이 있다(사41:21-23; 요 13:19, 14:29; 딤후1:18,19). 종말론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현재 상태로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죽을 때 그의 종말이 되고 지구 시간이 끝날 때 역사의 종말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 시각이 전혀 다르다.

7) 성경은 신(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론이 다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계시하지만, 가족관계로도 계시한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아버지이다. 동시에 신은 또 인간의 남편이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버지인 하나님 외에 다른 아버지를 두면 안 되고 남편인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면 안 되는 것이다(신32:6, 사54:5). 이 관계는 생명과 존재의 관계이며, 특별한 사랑의 관계이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존재와 생명을 잃으며 결과로 생활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8) 내세관이 다르다: 성경은 사람은 영원히 생명으로 존재하든지,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든지 한다고 계시한다.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거나 끝없이 윤회 환생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가르친다. 그들의 경전이 그렇기 때문일 것이다.

6.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사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글에 담아 계시했기 때문에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일이 어렵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뭉개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세히 읽어야 한다. 기록된 말씀과 창조하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안목으로 천연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